

박순이 선생의 삶과 생명존중사상 :

충현원의 설립과 역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Foundational Spirit of Choong Hyun Babies' Home: Respect  
for Human Life Demonstrated Through Lifework of Park Soon Ie

유혜량<sup>1)</sup>

<목 차>

I. 들어가며

II. 박순이 선생의 삶

1. 출생과 성장과정
2. 어머니 박애신과 우월순 선교사의 만남
3. 김생옥과 결혼, 그리고 여순사건

III. 충현원의 해외입양한인 산실

1. 충현영아원의 설립
2. 사회복지 참여
3. 사회사업 확대

IV. 충현원 정신의 실천과 글로벌화

1. 생명존중사상의 실천
2. 글로벌화

V. 나가며

---

1) 전남대학교 정치학박사, 사회복지법인 충현원 대표이자 박순이 선생의 자부임.

### <국문요약>

이 연구는 박순이 선생의 삶의 궤적, 충현원 설립, 사회복지 태동, 그리고 전쟁고아원에서 글로벌 시대 해외입양 한인들로 이어지는 정신계승 사업 등을 고찰하였다. 연구자료 분석은 연구자의 개인소장 문헌자료와 면접조사자료 등의 활용을 통해 이뤄졌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박순이 선생은 암울했던 한국근현대사의 역사적 질곡을 극복하고 충현영아원을 설립하여 전쟁고아들을 위해 생명존중정신을 몸소 실천하였으며, 그 정신은 지금까지도 다양한 방법으로 계승되고 있다. 둘째, 고아원 사회복지는 초기 한국사회복지의 기틀을 제공하였으며, 치료 사업에서 예방 사업이라는 탈시설화의 주장으로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였다.

이러한 박 선생의 생명존중의 정신은 충현원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역사적 가치 제고와 활용, 전쟁고아와 해외입양 한인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박물관의 건립 등으로 승화되어 계승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순이 선생의 생명존중정신의 글로벌적 확산 운동은 광주와 한국의 글로벌화이며, 다음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책무이다.

주제어: 박순이, 충현원, 전쟁고아, 해외입양 한인, 사회복지법인, 생명존중정신

## I. 들어가며

이 연구의 목적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하라는 예수의 가르침과 기독교적 생명존중정신의 기반 위에 전쟁고아와 여성보호를 위한 충현원(忠峴院) 설립을 통해 사회복지사업에 헌신한 박순이 선생의 삶과 정신을 고찰하는데 있다.

박순이 선생은 사회운동가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폐허가 된 삶의 터전을 회복하고자 사회복지사업을 발판삼아 고아원, 보육시설의 설립 등 여성과 아동들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며,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선구적인 인물이다.

박 선생이 세운 충현원은 한국전쟁 전후 길거리에 버려진 갓난아기들의 ‘따뜻한 둥지’로 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 사직공원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국내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 된 보육원으로 한국전쟁 전후 젓먹이 고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박 선생이 기독교정신에 입각하여 로버트 윌슨(Robert Wilson, 우월순) 선교사<sup>2)</sup>에서 운영하다가 1952년 5월1일 정식으로 선교부와 계약하고, 광주

2) 광주광역시 지정 기념물 제15호로 1910년경 우월순(Robert Wilson) 선교사에 의해 지어졌으며, 1926년 우월순 선교사는 한센병 환자들을 위하여 여수 애양원으로 이사하였고, 당시에는 미국 남장로교회 한국선교부였음. 박순이 선생은 그곳을 빌려서 젓먹이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하였음. 현

충현원을 설립, 1953년 현재의 장소로 이전하였다. 충현원은 태어난 아기는 친부모가 길러야 한다는 생명존중을 모토로 1972년부터 사회문제 치료 사업에서 사회문제 예방 사업으로 운영방침을 바꾸어 사회복지기관으로 전환하였다.

박순이 선생의 생명존중사상과 기독교적 삶의 실천이 집약되어 있는 충현원은 한국사회복지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한국전쟁 이후 70여년이 흐르는 시점에서 이 연구는 다음 세대들이 잊혀져 가는 충현원의 역사를 조금이나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여 후세에 남기고자 한다.<sup>3)</sup> 다시 말해서 박순이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충현원 원목으로서 선생의 정신계승 사업을 펼치고 있는 연구자는 그동안 많은 충현원 출신 해외입양 한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정체성에 관심을 갖고 이를 학술적으로 정리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자신의 뿌리를 찾아 충현원을 방문하는 원생 출신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충현원의 역사를 정리하고 보관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동안 무관심 속에 버려지거나 흩어진 자료들을 모아 정리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문헌자료나 구술자료는 연구자가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한 것들이다. 연구자는 2005년 5월 호남신학대학교 차중순 총장으로부터 브루스 커밍(Bruce Cumming) 제중병원 간호원장이 1953년 충현원에 대해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에 보낸 영문 선교 보고서를 전달받았다.<sup>4)</sup> 이 보고서는 한국전쟁고아들의 실태에 관한 내용과 우월순(월순)선교사의 사택에서 박순이 선생이 젓먹이 고아들을 돌보며, 충현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45명의 고아들이 모여지자 고아들에게 유아세례를 받게 한 후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서 기르겠다는 서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sup>5)</sup>

또한 2005년 5월 30일 미국 전몰장병기념일(Memorial Day) Las Vegas에서 열린 사진 전시회에 충현원의 자료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양(설립자 아들)과 김요한(설립자의 큰 손자)이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군목 러셀 블레이즈델(Rusell Lloyd Blaisdell)<sup>6)</sup>과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분들의 소개로 전시회를 주

---

재 우월순 선교사택으로 등재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우월순 선교사택으로 표기함.

- 3) 1995년 2월1일 박순이 선생이 소천하신 후 며느리인 연구자는 같은 해 7월 미국에서 한국으로 귀국하여 선생의 발자취를 찾기 시작함.
- 4) 당시 제중병원(현재 광주기독교병원) 간호원장을 지낸 브루스 커밍의 1953년 선교 보고서 내용 중에서 발췌하였음.
- 5) 이 보고서의 내용을 접한 연구자는 미국의 한국 전쟁고아들에 관한 웹사이트에서 충현원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하였다; 보육원명은 'Kwangju Choong Hyun Babies' Home이며 원장은 Mrs. Park Soon Ie, 주소는 210 Yangrim Dong, Kwangju Cholla Nam Do, Korea, 종교는 Presbyterian, 원아 수는 120명. 월남택(김인순, 1919년생)에 의하면 "충현원은 젓먹이 고아뿐만 아니라 양립동, 서동과 사동 일대 및 순천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1920년대의 초창기 건물들은 2012년 복원 되었고, 1954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의 후원으로 지어진 건물은 신생아 황달 치료를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충현원 경내에는 한국전쟁 고아의 아버지 군목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 동상과 한국전쟁 참전용사 조지 F. 드레이크 박사가 기증한 '비운의 왕좌 (Throne of Nezahualcoyotl -세바스찬 제작)와 세계적인 멕시코 조각가 세바스찬이 기증한 해외입양 한인들을 상징하는 '평화의 대사(Las Palomas Chica)'의 조각상이 있음.
- 6) 한국전쟁 참전 용사 군목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1910-2007)은 1950년 7월 한국 주둔 미 제5공군 사령부에 중령 계급의 군목으로 배속되었다. 한국전쟁 당시 1.4 후퇴 직전 상부의 후퇴 명령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전쟁고아들을 구출하고 돌보았다. 기적적으로 미공군 비행작전 명령권자인

관하는 조지 F. 드레이크(George F. Drake)박사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sup>7)</sup> 그때 Las Vegas MGM 호텔의 바로 맞은편 방에 투숙한 블레이즈델(Blaisdell) 군목이 1950년 12월 20일 서울에서 1,000 여명의 고아들을 구출한 사연을 영어에 능통한 김요한이 듣게 되었고, 이때부터 군목과의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연구자는 2005년 6월부터 미국 남장로교 선교기념관으로 충현원의 설립자인 박순이 선생의 자료를 본격적으로 찾아 나섰다. 이 과정에서 군목 블레이즈델 장남 카터 블레이즈델(Carter Blaisdell)과 존 무어(John V. Moore) 목사<sup>8)</sup>의 도움으로 미국 남장로회 선교박물관에서 선교활동 보고 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 거기에서 충현원이 우월순 선교사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밝혀주는 여러 장의 사진자료들을 발굴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 동안 연구자가 박순이 선생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관련 증언들을 기록하면서 그 동안 잘못된 역사 기록을 바로잡고, 한국사회복지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충현원의 태동과 성장과정, 박 선생의 생명존중사상, 그리고 글로벌시대 해외입양 한인의 치유지로서의 가능성 등 충현원의 역사적 의의를 고찰하였다.

## II. 박순이 선생의 삶

박순이 선생의 삶과 충현원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 왔다. 하나는 광주 근대문화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충현원의 사회복지학적 관점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 연구들이다. 또 하나는 박 선생의 개인적인 구술이나 사상 등을 기록한 스토리텔링의 성격이 강한 연구들이다. 이들 기존 연구에서 박 선생과 충현원에 관한 소중한 기록이나 연구 자료들을 소개하면, 전자의 경우 이용교(2013) 편저 ‘한국사회복지를 개척한 인물’과 한국사회복지협회(2015:72-75)의 “생명존중사상을 실천한 ‘광주의 누님’”, 그리고 김윤희희진(2015)의 ‘충현원의 발자취’ 등이다. 한편, 후자의 경우, ‘신안문화’(2014:50-57)에서 ‘음악을 사랑한 청년 김생옥’과 박선희(2015:139-149)의 ‘고아의 어머니 박순이 원장’ 등이다. 이것과는 다른 차원에서 현재의 충현원이 번역하여 출판한 군목 블레이즈델(2011)의 ‘1,000명의 아버지:

---

T.C. 로저스 대령으로부터 미공군 C-54 화물 수송기 16대를 얻어 내어 1950년 12월 20일 오전 8시 일본 미공군기지에서 김포로 도착, 1,000여명의 한국 전쟁고아와 직원들을 가장 춥고 눈이 오는 날 김포에서 제주도로 구출한 한국 전쟁고아 구출작전 또는 장난감 자동차 작전(Operation Kiddy Car or Kiddy Car Air Lift)을 계획하고 진두지휘한 주인공으로 진정한 한국전쟁고아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음.

7) Dr. George F. Drake는 한국전쟁 참전당시 고아들을 구하기 위해 구호품을 보내달라는 4,000통의 편지를 미국으로 보낸 한국전쟁 참전용사이다. 미국과 한국의 한국전쟁고아 추모회 코디네이터이며, 한국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이다. 그가 소장하고 있던 한국전쟁 고아 관련 모든 자료들을 ‘한국전쟁고아와 해외입양 한인 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충현원에 기증하였음(www.koreanchildren.org, 검색일: 2018년 4월 19일).

8) 1892년에 내한하여 조선의 천민을 사랑한 선교사 Samuel F. Moore(1846-1906, 한국 이름은 모삼열(牟三悅)의 아들로 나와 있음.

한국전쟁 고아의 아버지'에서 미국인 선교사와 전쟁고아들의 해외입양에 관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연구는 충현원의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나 사회복지학적 차원 이상의 가치와 의의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그 동안 기존연구 자료들에서 찾기 어려운 박 선생과 충현원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물과 증언 자료들이 발굴됨에 따라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고, 기존에 잘못 기록되거나 전달된 부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 동안 박선생의 정신을 이어 받은 충현원에 관한 모든 일을 담당해 온 연구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故 박 선생과 충현원에 관한 기록에서 오해가 있거나 잘못된 사실들을 확인하여 시정하였다. 나아가 이들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누락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연구자의 기록과 새로운 증언에 근거하여 보완함으로써 박선생과 충현원을 둘러싼 후속 연구의 학술적 완성도를 제고시켰다. 그러면 다음 절에서 '광주의 마더 테레사', '광주의 누님', '고아의 어머니'로 불렸던 故 박순이 선생의 생명존중정신과 충현원의 태동 및 행동적 실천적 의미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 1. 출생과 성장과정

광주광역시 양림동에 충현영아원(현재 사회복지법인 충현원(忠峴院))을 설립한 박순이 선생은 (1921년 1월 18일-1995년 2월 1일) 광주 양림동에서 태어났다. 박 선생의 호는 아지(我知)이며, 나주 반남 출신의 아버지 박태삼과 어머니 박애신 사이에 마흔 살이 다 되어 늦은 나이에 태어난 귀한 외동딸이었다. 박태삼은 딸이 태어난 후 독립운동을 위해 만주로 떠나 그 후 연락이 두절되었다. 그리하여 박 선생은 성장과정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박 선생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1921년경 부친 박태삼은 독립운동을 하러 간다며 연락이 끊겼고, 이후 어머니 박애신은 홀몸으로 외동딸 박 선생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어머니 박애신은 늦둥이 외동딸을 애지중지 키우기보다는 가정교육에서는 매우 엄격했다고 한다. 나중에 박 선생은 “성인이 되어서야 그것이 어머니의 깊고 넓은 끝없는 사랑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려운 고비를 만나 내가 방황하고 자신이 없어질 때, 큰 격려와 용기를 불어 넣어주는 손길로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이것은 어머니 박애신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끈기와 인내로서 극복할 수 있다는 당신의 정신력을 딸에게도 그대로 길러준 것이라고 회고했다.<sup>9)</sup>

박순이 선생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 수피아여학교 4학년 때 신사참배 거부로 학교가 폐교되어 전남여고에서 학업을 마쳤으며, 나중에 1968년 수피아여고 개교 60주년 때 명예졸업장을 받기도 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서양 문화 속에서 자라 성인이 된 박 선생은 선교사 자녀들과 생활을 하면서 능통해진 영어로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과 치과의료선교사인 뉴스마(Dick H. Nieuwma, 유수만) 선교사까지 한국말을 가르쳤다. 그리고 양림교회에서 피아노 반주활동을 했으며, 오웬 기념관에서

9) 『광주일보』 1985년 10월 1일자에 연재된 박순이 선생의 글 “성묘” 중에서 발췌하였음.

여성교육자 김필레 선생<sup>10</sup>)과 성탄절 성악발표회 때, 반주를 도맡아 연주하기도 했다. 박선생과 한 시대를 같이 한 의도인(毅道人) 허백련<sup>11</sup>)의 ‘경천애인(敬天愛人)’과 독립운동가 목정(牧丁) 최한영<sup>12</sup>) 선생의 ‘陽春布德澤萬物生光輝 (따뜻한 봄날 은혜의 빛이 비치니 모든 사물에서는 빛이 나는 것 같다.)’의 글씨는 목정 선생이 충현원에 직접 기증하시어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으며, 박 선생은 이 글씨를 걸어 두고 오직 생명존중과 그 귀중함을 으뜸으로 여기셨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여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 사랑과 봉사로 인간승리를 이룩하신 분으로 단아하고 올곧은 그분의 인품은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1995년 2월 1일 평소 가장 사랑했던 장소이며 어머니 박애신과 나란히 충현원 뜰에 연구자 내외의 손에 의해 안장되었다.

## 2. 어머니 박애신과 우월순 선교사의 만남

박순이 선생의 어린 시절은 1908년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부에서 한국으로 파송된 로버트 윌슨(Robert M. Wilson, 한국명 우월순)선교사 가족과 박선생의 어머니 박애신 여사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우월순 선교사는 광주 양림동에 복음전파와 치료를 목적으로 내한하여 제중병원(현재 광주기독교병원) 2대 원장으로 취임하였다. 우월순 선교사는 7남매의 자녀들을 돌보고 함께 통역할 신실한 크리스천을 찾다가 박애신을 침모로 채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박애신은 만주로 떠나고 연락이 두절된 남편을 기다리며, 1921년 외동딸 박 선생을 출산한 후 얼마 안 되어 우월순 선교사의 일곱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박애신은 우월순선교사 가족들에게 한복과 세라복을 만들어 입혔는데, 그의 자녀들이 잘 따르고 애신 어머니라고 불렀다고 한다.<sup>13</sup>) 항상 조용하고 친절한 성품의 박애신은 1926년에 우월순 선교사 가족이 한센병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여수 애양원으로 이동하면서 박애신은 선교사 로버트 낙스와 메이 낙스(Robert Knox 한국이름: 노라복 과 Maie(Borden) Knox 한국이름: 노메이)<sup>14</sup>) 가족의 요리사로 일했다(1926-1940). Mrs. Maie(Borden) Knox는 요리에 재능이 많아 한국인 박애신에게 다양한 서양요리를 전수하였다. 이곳에 근무하면서 박애신은 여수 애양원에서 발생하는 미감아들을 격리하여 돌보는 일을 병행했다<sup>15</sup>). 광주YWCA와 수피아여고의 재건에 앞장섰던 광주의 어머니라고

10) 김필레(1891-1983): 여성 지도자·교육자, 남편은 최영욱(전라남도 도지사를 역임하였음). 1916-1919년 정신여자중학교 교사, 1922년 교감. 광주 기독교청년회의 첫 교육사업으로 광주시 양림동의 유치원을 인수하도록 도와주었다. 김활란·유각경(兪珏卿)과 대한여자기독교청년회연합회(YWCA)를 창설하였다.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과 농촌 계몽에도 힘썼다. 1937년까지 광주시 수피아여자중학교 교감을 지냈으며 1945년 광복과 동시에 수피아여자중학교 교장에 취임하였고 이후 1962년 정신학원 이사장을 지냈다. 1972년 국민훈장모란장이 수여하였음.

11) 허백련(1891-1977)은 남도의 대표적인 화가.

12) 최한영(1901-1990)은 1919년 3월 10일 이후 광주지역에서 전개된 독립운동가로 알려져 있음.

13) 2009년 5월 18일 우월순선교사의 장녀 Liz 와 John Wilson과의 인터뷰 내용, 장소;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몬트리트 시 John Wilson 자택에서 실시하였음.

14) 종교개혁자 John Knox의 후손으로 축첩제도를 방지하는 일을 모범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음.

15) Half a life time in Korea by Mary L. Dodson 중에서

불리는 조아라 선생은 박애신에 대하여 서양 귀빈들이 광주를 방문하게 되면 아무 걱정 없이 서양요리를 대접할 수 있을 정도로 요리에도 조예가 깊었고, 광주에 호텔이 없을 당시에 충현원 생활관이 미국 대사 부인의 숙소로 제공되었다고 회고했다.<sup>16)</sup> 박 선생은 어린 시절 우월순 선교사 가족, Robert Knox 가족과 함께 지내며 영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었고, 서양요리에도 탁월한 재능이 있었다. 우월순선교사는 여수 애양원에서 발생하는 미감아들을 격리하여 선교부 내 현재 수피아여고 강당 자리에서 살고 있던 박애신에게 보내어 양육하도록 했다.<sup>17)</sup>

### 3. 김생옥과 결혼, 그리고 여순사건

어린 시절 서양선교사로부터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자란 박순이 선생은 1944년 성악가 김생옥과 결혼하였다. 남편 김생옥은 신안군 안좌도에 청색기와 집이라는 의미의 청와대로 불리는 부잣집의 3남 1녀 중 셋째로 태어났다. 김생옥은 서울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하여 동경 나가노구에 있는 일본고등음악학교를 졸업했다. 목포고등학교 제자인 서한태 박사<sup>18)</sup>의 증언에 따르면, 바리톤이었던 김생옥은 일본 4대 도시를 순회공연 할 정도로 이름을 날려 매우 유명했고, ‘울밑에 선 봉선화’와 ‘금강에 살으리랏다.’를 그에게 배웠다고 회상했다. 1944년 일본에서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성악가 김생옥과 나중에 숙명여대 교수가 된 노신옥 선생과 쌍벽을 이루었던 피아니스트 박 선생과의 결혼은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

김생옥은 무엇보다 전남 신안군 안좌도의 부잣집 아들이면서도 성악가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으로 유명했던 점과 당시 선교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능통한 영어실력과 피아니스트로 알려진 박 선생과의 결혼은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다. 결혼 후 1남 1녀를 낳고 유럽유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던 김생옥(당시 30세)은 1948년 10월 광주 동방극장에서 순천여학교 제자들과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 독창회 준비를 위해 당시 3세였던 아들과 8개월 된 딸 등 네 식구가 양림동 친정집에서 잠시 지내게 되었다. 그 당시 음악회 장소였던 동방극장에서는 당시 유행했던 영화가 절찬리에 상영되어 음악회를 3일만 연기하자는 연락이 왔다. 마침 그 사이에 여수순천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순천여중생 120명 중 20명만 살아남았을 정도로 지역의 큰 사건이었기에<sup>19)</sup> 제자들이 걱정이 된 김생옥은 아내 박 선생에게 “금방 갔다 올게. 아무 일도 없을 것이요.”라는 말을 남기고 순천으로 떠났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마지막 영원한 작별인사가 되고 말았다. 김생옥은 1948년 10월 31일 순천시 죽도봉 골짜기에서 좌익혐의로 경찰에 의해 총살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김생옥은 처형 직전에 “내가 성악가인데 노래 한곡 부르고 갈 수

16) 1992년 조아라 자택에서 인터뷰 내용 중에서

17) 1994년 여름 충현원에서 박순이 선생과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18) 서한태(1928-2018) 전남 무안군 출생 목포시의사회장과 전라남도의회 의장 등을 역임. 환경운동가. 대한민국 환경운동 효시이자 전남지역 환경운동의 산증인으로 불림

19) 김생옥선생의 순천여학교 제자이며, 미국 LA 거주하고 있는 오찬양의 증언.

있게 허락해 달라”며, ‘울밑에선 봉선화’를 불렀다고 한다.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에 저항하면서 부르던 ‘울밑에선 봉선화’를 김생옥은 처형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불렀다.<sup>20)</sup> 처형 당시 사형 지휘관은 “노래를 잘 부르는 인재이니 죽이지 마라”는 신호를 보냈는데, 부하들은 그 지시를 “빨리 죽이라”는 신호로 잘못 알아듣고 방아쇠를 당겼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다. 당시 광주 친정에 있던 박 선생은 남편의 사망소식을 듣고 광주 세무서장으로 있던 시누이 남편의 도움으로 군용 지프차를 타고 순천에 갔지만, 시신을 찾지 못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사살되었기에 시신이 어딘지 모르는 장소에 매장되었기 때문이다. 박순이 선생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이렇게 4년 만에 끝났다. 아내 박 선생에게 몇 년 후 유럽으로 유학 가서 첼로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약속했던 남편 김생옥의 말도 물거품이 되었다. 남편이 사망한지 45년 후인 1993년 8월 정 트리오(바이올린 정경화, 첼로 정명화, 피아노 정명훈)의 광주공연을 감상한 후 박 선생은 일기장에 당시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솔직하고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세상을 일찍 떠나버린 남편 생각이 새삼스럽다. 그와 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음악의 세계에서 헤엄치듯이 노닐고 살았을 텐데. 유럽에 가면 나에게 첼로를 공부시켜 주겠다고 그의 말이 오랜만에 새삼스럽게 떠오른다. 신은 나를 절대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뺏어 주고 계신가? 그러면서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신다. 나 여호와 하나님은 투기(질투)하는 하나님이지니. 신의 사랑에도 투기(질투)가 따른단 말인가.”<sup>21)</sup>

### Ⅲ. 해외입양한인의 산실

#### 1. 충현영아원의 설립

한창 젊은 나이인 27세 때 자녀 둘을 남기고 떠난 남편의 사망소식은 박순이 선생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러한 박 선생의 사정을 알게 된 서양선교사들은 미국에 가서 함께 생활하자고 제안했다. 그때 박 선생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를 하면서, 일제강점기 그 어려웠던 시기에 모친이 우월순 선교사의 침모로 일한 덕분에 배고픈 줄 모르고 영어는 물론, 부잣집 애들이나 배울 수 있는 피아노까지 배워 남들이 부러워 할 정도의 피아니스트로 성장한 것에 대해 감사했다. 당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고아들은 누군가 돌볼 수 있었지만, 젖먹이 고아들은 돌보기 어려운 시대였다. 박 선생은 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길에 버려진 영아들을 돌보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젖먹이 고아들을 위해 헌신할 것을 결심하여 한국전쟁으로 철수 명령을 받아 미국으로 귀국하는 우월순 선교사의 사택을 빌려 충현영아원(Choong Hyun Babies' Home)을 설립했다. 박 선생은 충현원을 운영하면서 영아

20) 2013년 조영순(1922-2017; 작은 형수, 현 서울사대 1회 졸업)과 순천여고 제자 13명의 증언.

21) 1993년 8월 기록된 박순이 선생의 일기장에서 발췌하였음.



들에게 유아세례를 주고, 그들의 어머니가 될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였다. 박 선생의 업적과 충현원 설립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최초로 1949년 젓먹이 고아들을 위한 충현영아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1953년에는 신생아(젓먹이)들의 황달 치료를 위한 건물을 신축하였다. 의료시설이 아주 열악하던 당시 햇별이 신생아 황달 치료효과가 좋다는 것을 알고 당시 2층 벽돌 건물 남쪽 전면을 유리창으로 만들었다. 한국전쟁 이후 영아 사망률이 높은 실정이었던 한국의 영아사업은 대부분 1950년대까지 일반 무의탁고아들과 함께 고아원에서 혼합 수용되었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영아의 특수양육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분리 수용되었다.

영아원 사업은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긴장된 생활의 연속이다. 매일 정시에 수유·식사·기저귀교환·목욕·일광욕을 시켜주어야 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잠시라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바로 질병에 걸렸다. 당시 국가보조금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운영이 가능했던 점은 박순이 선생이 그 동안 맺어놓은 미국 남장로교 한국선교회 소속 브루스 커밍(Bruce Cumming, 로버트 녹스(Robert Knox), 허버트 A. 카딩턴(Herbert A. Codington), 윌슨 (Robert Wilson), 플로렌스 루트(Florence Root) 선교사들과 한국인으로는 백영흠<sup>22)</sup> 목사, 김상욱 한의사, 1958년부터 촉탁의사로 취임하여 친혈육 같은 여성숙 선생<sup>23)</sup> 등의 헌신적인 후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 이후에는 백근칠<sup>24)</sup> 회장이 설립한 한국사회봉사회와 한화아동재단(네덜란드) 등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둘째, 박순이 선생은 광주 최초의 충현아동상담소(1972년)와 충현어린이집(1972년), 충현아동병원(고아전용병원)(1976년), 공공어린이놀이터(1976년), 기아일시보호소(1972년)를 설립하였다. 이러한 어린이사업들은 한화아동재단(NKCF)의 후원을 받아 이루어졌다. 박 선생이 충현영아원을 설립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제한을 받았던 것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육아시설 고아원으로 전원시키라는 법에 따르는 것이었다. 영아원에서 박선생을 엄마로 생각하면서 성장한 아이들을 육아시설로 전원시킬 때의 이별은 아동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이 따랐다. 어떤 아동은 이전된 시설에서 식음을 전폐하여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발생했고, 전원된 육아시설을 탈출하여 충현원까지 찾아오는 사례도 있었다. 1957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 충현원으로 등록하여 1970년대가 되면서 제도적으로 국내외입양을 권장하면서 충현원에서는 1967년부터 1991년까지 해외입양사업도 전개하였다.

셋째, 시대의 변화와 함께 충현아동병원은 지방 최초로 1981년도에 호남종합사

22) 백영흠(1904-1986) : 경기도 인천 출생, 호-은제, 목사. 수피아 여학교 제 7대 교장 역임. 동부교회 설립, 담임목사, 광주YMCA 9대, 11대, 13대 아사장, 초대 재단이사장역임, 1980년 5.18시에는 죽음의 행진에 참가하였음. 충현원 설립부터 소천 직전까지 충현원에 어려운 일이 발생될 때마다 헌신적으로 해결하였음.

23) 여성숙(1918- 현재) : 오갈 데 없는 폐결핵 환자들을 어머니처럼 돌본 제중 병원 흉곽내과의사, 목포의원원장, 디아코니아 자매회 설립자

24) 백근칠(1922-1985) : 황해도 출신, 호-청려, 아동(입양) 및 청소년복지로 1952년 미국해외개발본부, 한국원조개발사업 본부에서 근무하였음. 1964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사회봉사회 설립 및 이사장 취임, 1978년 청소년수련시설(새싹동산청려수련원) 사업 착수하였음.

회복지관(서울은 북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보건사회부의 모델사업으로 선정되어 운영되었다. 박순이 선생은 영아원을 시작할 때부터 아동양육은 고아원 시설보다는 가정위탁이나 입양을 중시해온 탈시설론자였다. 박 선생은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의 초대관장을 역임하면서 전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따라 충현아동병원을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사업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밖에도 박선생은 해외입양 한인의 뿌리찾기 운동 사업을 전개하였다. 해외입양 한인들이 언젠가는 자신이 태어난 모국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일가친척을 찾는 이들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 2. 충현원의 사회복지 참여

당시 피아니스트였던 박순이 선생은 1944년 일본 동경유학생 성악가 김생옥과의 결혼으로 지역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만 행복한 결혼생활은 4년을 채 넘기지 못했다. 결혼 후 1남 1녀를 낳기는 했지만 1948년 10월 여순사건<sup>25)</sup>으로 남편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때 박 선생의 나이는 27세에 불과했다.

한국전쟁으로 고국으로 철수하던 미국선교사들이 미국 가서 함께 살자고 권유했을 때 정중히 사양하고 오히려 극심한 빈곤으로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신생아들을 돌보겠다는 생각에서 빈 집이 되어가는 우월순 선교사댁을 빌려달라고 제안했다. 이곳에서 선생은 어린 아이들에게 젖을 먹일 때 반드시 가슴에 안고 먹였는데 따뜻한 모성애를 통해 아이들이 어미의 사랑을 느끼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며, 당시 돌보는 아이가 120명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한국전쟁으로 고아들이 넘쳐나 수용인원에 한계를 느끼자 박 선생은 친정어머니 박애신과 함께 사재를 털어 양림동 210-1번지의 부지와 건물 3동을 광주YWCA 5대 회장을 지낸 김정현과 장장로 부부로부터 매입하여 1952년 5월 1일에 양림동 210(제중로 84)번지로 이사하였다. 박선생은 당시 YWCA이사였고 부회장을 지냈고,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 광주 지부 회장을 역임 하면서 여성의 권위 향상에 기여한 바 크다. 박선생은 자신이 낳은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입양한 딸 하나와 원생들을 친자식처럼 차별하지 않고 먹이고, 입히고, 학교에 보냈다. 박 선생은 고아들을 사랑과 헌신으로 밝고 바르게 길렀으며, 입양시킬 때,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느끼고 그들을 조금이라도 좋은 조건의 환경으로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박순이 선생은 새 삶을 찾아 떠난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연어가 고향을 찾듯 자신의 뿌리를 찾아올 때 그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지키며 반갑게 맞아주곤 했다. 원생들 중에는 해외에서 훌륭한 사회인으로 성공한 이들도 많았다.

---

25)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제14연대에 소속된 군인들이 제주도 4·3사건 진압출동을 거부하고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저지하려고 일으킨 사건. 해방직후 좌익과 우익의 대립으로 빚어진 민족사의 비극적 사건이며 일반적으로 여순반란사건으로 소개되고 있으나 지역 주민들이 반란의 주체라고 오인할 소지가 있어 1995년부터 '여수 순천사건'으로 지칭하고 있음.

이들 가운데 나중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국내에 정착한 이들도 있었다. 박 선생은 우리 시대에 헌신적 봉사를 실천한 한국의 ‘마더 테레사’라고 불리기도 했다. 생전에 영아원을 통해 4,700여명의 생명을 구한 것은 가장 큰 업적의 하나이다.<sup>26)</sup> 이후에도 네덜란드 아동재단에서 영아들의 생계비와 교육비를 지원받아 학교교육을 시키며, 고아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보육원으로 인정받고 운영하였다. 1970년 초 박 선생은 “1년에 국고 세금 10억 원을 지원해야 고아원을 운영한다. 그런데 1억 원만 있어도 발생하는 고아들을 예방할 수 있다. 다 함께 고통분담을 나누어 가질 각오로 사회문제예방의 복지사업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면서 사회복지기관의 대표들을 초청하여 다양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당시 한국의 지식인 백근칠, 박종삼<sup>27)</sup>, 이강재 선생<sup>28)</sup> 김천배선생<sup>29)</sup>등을 초청강사로 모시기도 했다. 박 선생은 사회문제 치료사업인 고아원을 운영하다가 고아 발생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환하여 1972년부터 광주 최초의 어린이집인 충현어린이집을 개원하였다.

당시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광주광역시 남구 양림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차원의 구제활동을 실천한 선교사들은 1904년에 선교와 복지의 씨앗을 뿌린 유진 벨(Eugene Bell 한국이름: 배유지), 의료와 건축, 구황식품을 통해 복지를 실천한 로버트 윌슨(Dr. Robert Wilson, 한국이름: 우월순), 간호학과 복지의 선구자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Elizabeth Johanna Shepping, 한국이름: 서서평), 교육과 복지를 실천한 프로렌스 루트(Florence Root, 한국 이름: 유화례), 일본 제국주의의 수탈로 폐쇄해진 한국 농촌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고, 문맹 퇴치 등으로 복지를 실천한 고든 어비슨(Gordon. Avison), 폐결핵 환자들의 의료복지를 실천한 카딩턴(H.A. Codington 한국이름: 고허번), 기독교 병원 간호원장이었던 브루스 커밍(Bruce Cumming), 치과 의료의 선구자 뉴수마(Dr. Dick. H. Nieuwsma, Jr 한국이름: 유수만)선교사 등이다.

이들 선교사들로부터 생명존중 정신을 배우고 협력 사역을 실천하면서 의료와 사회복지 실천을 위해 노력했던 한국사람들을 가나다순으로 정리하면, 강순명, 김준호, 김필레, 박순이, 박애신, 손양원, 여성숙, 이준목, 이현필, 정인세, 조아라, 최홍종 등이다. 이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한센병자, 결핵환자, 정신질환자, 부랑인, 일제의 압박과 한국 전쟁 전후 발생된 고아들을 위해 당시 그들에게 가장 절실했던 의료와 사회복지를 헌신적인 사랑으로 실천했던 분들이다. 따라서 현재의 양림동은 한국 근대 사회복지 실천운동의 구심점이자 역사적 장소이기도 했으며, 충현원이 양림동에 자리 잡게 된 배경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경제 성장과 더불어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여 한국전쟁 전후에 발생한 전

26) 『광주일보』 1995년 2월 5일, 43년 동안 ‘사람사랑’ 정신 하나로 살아온 ‘광주의 테레사’.

27) 박종삼(1936-현재) : 황해도 신천 출생, 치과 의사, 목사, 보이스타운 설립자, 숭실대학교수, 월드컵 전 회장 역임.

28) 이강재(1931-2010) : 전남 보성 출생, 언론인, 금호문화재단 부이사장을 지냄.

29) 김천배(1916-1988) : 전북 군산 출생, 호-울안, 광주YMCA 7대, 10대, 17대 총무,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때에 수습위원. 충현원 직원들을 위하여 매주 특강하였음.

쟁고아들의 보금자리였던 고아원 운영제도가 1970년대부터 바뀌기 시작했다. 탈시설론자인 박 선생은 친부모가 태어난 아기를 길러야 한다는 모토로 충현원을 1972년부터 사회문제 치료 사업에서 사회문제 예방 사업으로 기본방향을 바꾸어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으로 전환하였다. 한국산업화 과정에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로 바뀌어 갔다. 박 선생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1976년에는 네덜란드 아동재단의 후원을 받아 현재 사직도서관에서 양림미술관까지의 부지에 광주 최초의 어린이 공동 놀이터를 네덜란드 후원을 받아 설치하여 광주시(1976년 8월 15일)에 기증하였다.

또한 박순이 선생은 고아들을 잘 돌보아주던 고허번(카딩턴 선교사)<sup>30)</sup> 방글라데시로 떠나자 충현원 안에 광주 최초의 아동전문병원을 보육시설에 있는 모든 고아원 어린이들이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박 선생의 봉사와 헌신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광주청년회의소는 충현원의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잘 성장하자는 의미로 1960년3월23일 창립기념식수로 히말라야시대를 충현원의 뜰에 심었다.<sup>31)</sup> 그리고 충현아동상담소와 충현영아일시보호소를 개설하여 미혼모와 출산영아를 돌보는 사업을 시작했다. 박 선생은 고아들에게 학자금과 생활비를 지원하며 친인척 집에서 생활하면서 가정의 삶을 배우도록 노력했다. 네덜란드 한화재단으로부터 고아 전용병원 건축 후원금이 도착하여 건축을 시도했으나, 충현원 부지가 1967년부터 도시공원 계획에 묶여 시행되지 못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서 보낸 기금과 아들 김 양의 사유재산을 합해 쌍촌동 887-5번지에 1981년 1월 지방에서 최초 시범사업으로 사회복지관인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 개관하여 사회문제 예방사업에 매진하였다.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올곧은 성품으로 광주 고아의 어머니로 존경받았다. 1990년과 1991년 광주시민대상 수상자로 두 번이나 추천되었으나 사양했고 『광주 백년사』와 『무등산』을 쓴 박선홍 선생께서 직접 시민대상을 상정하였으나 자신이 정중히 사양했다. 그리고 1962년 8월15일 군사혁명 직후 박선생의 의사가 묵인 된 채 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상이 수여된 결과 출생년도가 잘못 기록된 공익포장증을 받기도 하였다. 그 후 2015년 제26회 전국 사회복지 대회에서 故 박순이 선생의 공적을 인정하는 민간포상(특별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선생의 묘비에 평생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후서 6장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

탈시설화의 일환으로 소년·소녀 가장들이 기관에 수용되지 않고, 친인척 집에서 생활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

30) 광주의 성자로 불렸던 고허번(Dr. H. A. Codington) 선교사는 1949년에 미국남장로교 한국선교사로 내한하여 1951년 9월 광주제중병원을 재개원하고 결핵환자 치료를 재개하였다. 고허번 원장은 1974년까지 한국에서 결핵환자, 빈민, 정신병자, 윤락여성 등을 위해 헌신하였으며 1974년 방글라데시로 떠나 그곳에서 25년을 더 봉사하고 은퇴하였음.

31) 박선홍(1928-2017) : 광주 출생, ‘광주 근대문화사’의 산증인으로 근대도시 광주가 걸어온 길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광주 입문서 <광주100년>과 <무등산>을 쓴 향토사학자이자 환경운동가로 전 무등산공유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했음.

다. 1975년부터 1995년까지 광주 순천에 사는 50명의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졸업 때까지 학비와 생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979년 생전의 박순이 선생은 "한국 전쟁의 고아들은 몸도 마음도 성치 않았습니다. 저는 여자이고, 미망인이었고, 연약했어요. 이 과업은 제 능력 밖의 일이었죠. 하지만, 저는 지난 31년 동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24)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였고, 저 또한 많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회고했다.<sup>32)</sup>

### 3. 충현원 사회사업의 확대

박순이 선생이 1995년 소천하자 충현원은 미국에서 생활하던 연구자가 사업을 계승하였고,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은 아들인 김 양 관장이 사업을 이어갔다. 미국에서 주재원으로 사회복지업계에 취업해 일하다가 자녀들과 헤어지고 충현원으로 돌아온 연구자는 자신의 뿌리를 찾아 충현원을 찾는 원생 출신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하여 충현원의 역사를 정리하고 보관할 필요성을 절감하여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연구자는 2003년 호남신학대학 총장과 사진자료를 보면서 박순이에 대한 선교보고 내용을 알게 되었다. 2005년 5월 한국을 방문한 박 선생의 장손인 김요한과 함께 제주병원 간호원장 브루스 커밍(Bruce Cumming)의 선교보고서를 받아 번역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박 선생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였다. 한편 연구자 일행은 ‘미군 병사들과 한국 아이들-그들의 사랑이야기(1950-1954년 미군과 한국아이들)’라는 주제로 한국전쟁 고아 관련 사진 전시회가 Las Vegas MGM 호텔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참석하였다. 그 전시회에서 1950년 12월 20일 1,059명의 고아들을 서울에서 제주도로 구출한 주인공인 러셀 블레이즈델(Russell Blaisdell) 대령을 만나게 되었다. 이 만남이 계기가 되어 그의 소개로 미국 남장로교의 박물관에서 존 무어(John V. Moore) 선교사와 블레이즈델의 장남 카터 블레이즈델(Carter Blaisdell)목사의 도움으로 1949년부터 1955년 당시 충현원 자료를 찾게 되었다.

또한 그의 소개로 연구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조지 에프 드레이크( Dr. George F. Drake)박사를 소개받아 한국전쟁 당시 수많은 고아 관련 자료와 사진들을 기증받았다. George F. Drake박사는 한국전쟁에 참전하면서 당시 길거리에서 6살 난 아이가 아기를 업고 구걸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미국으로 구호물자 원조를 요청하는 약 4,000통의 편지를 보냈다. 그는 잊혀져가는 한국전쟁 당시의 참전용사의 한국전쟁고아 사랑을 안타깝게 여기고 고아들의 전쟁 당시 상황들을 담은 사진들을 9년 동안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한편, 블레이즈델 대령은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에서 박 선생의 자료를 발견하자 한국 전쟁고아들을 자신의 목숨이나 명예와 맞바꾸면서 제주도로 구출한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의 생명존중과 한국전쟁 고아사랑

32) 박순이 선생의 호남종합사회복지관 개관 연설문 중에서.

의 실천정신을 충현원의 생명존중 정신과 함께 이어가자는 제안을 하였고 충현원은 이를 수용하였다.

2005년 여름 연구자는 충현원 원아들의 건강을 보살펴준 카딩턴 선교사(Herbert A. Codington, Jr)의 아들 데이비드 카딩턴(David Codington) 목사의 자택을 방문한 후, 역대 선교사들의 묘역을 참배하였다. 귀국 길에 Dr. George F. Drake로부터 8월 초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그 때 충현원을 방문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한국을 방문한 드레이크 박사는 제주도 조각공원과 옛 고아원 자리를 다시 방문한 후 광주에 와서 충현원 주변을 새벽마다 혼자 돌면서 생각했다고 한다. 그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예전(1950년대)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살아 있는 역사의 공간이고, 인류애의 문화적 가치가 무궁무진한 이곳 충현원이야말로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귀중한 자료들이 빛을 보게 할 장소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충현원 주변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는 사직공원 일각에 한국전쟁 참전국의 조각공원을 조성해서 젊은 조각가들의 교류의 장이 되도록 돕겠다고 약속하였다. 드레이크 박사는 2006년 6월 중순 광주에서 한국전쟁 고아 관련 사진 전시회를 개최할 뜻을 전해 왔고, 충현원은 광주사회복지협의회 및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한국에서 처음으로 한국전쟁고아에 관한 사진 전시회를 2006년 8월 14-19일에 광주광역시 신청사에서 개최하였다.<sup>33)</sup>

한편 사진 전시회의 소책자를 받아본 군목 블레이즈델과 장남 카터목사님 내외분은 박순이 선생의 헌신적인 생명존중정신이 1950년 12월 20일 제주도로 전쟁고아들을 구출한 상황과 목적이 똑같다면서 충현원에 연락을 취해 왔다. 그러던 차에 2007년 1월 7일 그 동안 영문으로 회고록을 써놓고 한국 보육원으로 전해주지 못한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군목 블레이즈델 대령과 장남 카터 블레이즈델이 미국 남장로교 출신 목사이며,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 운영하는 충현원에 한글과 영어 합본의 판권을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2007년 5월 1일 군목 러셀 블레이즈델은 소천하였고 연구자는 한국전쟁고아 대표로 이강훈과 함께 Las Vegas에 있는 미공군 묘역에서 치러진 장례식에 참석하였다. 2008년 5월에는 '전란과 아이들 그 일천 명의 아버지'의 출판 기념식과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의 1주기 추모식을 성대히 개최하였고, 2009년 12월 17일 그의 동상을 충현원에 설치하여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 IV. 충현원 정신의 실천과 글로벌화

##### 1. 생명존중사상의 실천

33) 서울에서 전시하기로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기다리던 중에 2006. 8. 14 '1950-1954년의 미군병사들과 한국아이들'이라는 사진전시회'를(미국 Korean Project Coordinator 도움으로) 광주광역시 신청사에서 개최하였고 한국전쟁 참전 용사 Dr. George F. Drake는 한국전쟁 고아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은 충현원에 기증하였고, 2006년 12월 1일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이 되었음.

여기에서는 박순이 선생의 자전적인 수필과 언론보도를 통해 사상적 기반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 객관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자전적인 수필은 1985년 광주일보에 연재된 신문기사를 살펴보았으며, 객관적인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 그동안 언론 보도자료와 각종 수집 자료를 분석하였다. 먼저 1985년도 광주일보 연재수필에 대해서 살펴보면, 박 선생의 사상은 ‘인생, 사랑, 평화’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5년 10월 1일 ‘성묘’라는 제목의 글에서는 “나는 무량한 어머니의 사랑의 받침으로 어려운 가운데도 바로 서서 반평생을 그늘진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달하는 일을 할 수 있었고, 외로움에 떠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고 힘을 다 해 왔고, 상대방의 아픔을 내 것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삶을 살려고 무척 애를 써 왔다.” 1985년 10월 28일 ‘인생 길’에서는 “하늘에 뜻을 두고 사는 사람은 삶의 가치기준이 달라져도 두려움이 없고 비굴하지 않는 삶을 누리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편안하게 해 주고 자신도 하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간다.” 1985년 11월 13일 ‘노 모어 히로시마’에서는 “각자가 가진 작은 힘, 큰 힘들을 합해서 조금씩이라도 사랑과 믿음의 평화스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겠다.” 1985년 12월 10일 ‘내 이웃’에서는 “명절이나 성탄절이 오면 더 외롭고 아파하는 이웃들의 가슴에 따뜻한 관심과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찾게 해 주는 진정한 이웃이 되자” 등에서와 같이 핵심키워드는 생명, 사랑, 평화이다. 박 선생은 일생 중요한 문제로 삼았던 생명존중정신의 사상적 기반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

다음은 박순이 선생의 삶과 사상에 대하여 광주지역 및 언론의 평가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보도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995년 2월 1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박 선생에 대하여 언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먼저 광주일보 2월 5일자에는 “평생 남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사업에 헌신해 온 호남종합사회복지관장 박순이(74)”라는 제목으로 43년 동안 ‘사람사랑’ 정신 하나로 살아온 ‘광주의 테레사’였다고 평가했다.<sup>34)</sup> 주변 사람들은 박 선생에 대해 정직과 성실을 생활신조로 삼고 “항상 남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친부모처럼 따랐고 또한 불의에 타협하지 않은 곧은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입을 모았다.<sup>35)</sup> 무등일보 2월 3일자에는 “평생을 사회복지사업에 헌신한 ‘고아들의 어머니’였다. 1948년 일본 동경고등음악학교에서 성악을 전공한 남편과 함께 이탈리아로 유학 갈 꿈에 부풀어 있던 그는 여순사건의 와중에서 음악교사로 있던 남편을 줄지에 잃고 인생의 행로를 바꿔 육영사업에 투신하게 됐다.<sup>36)</sup> 평소朴씨를 ‘가장 존경하는 누님’이라고 불렀던 언론인 이강재 선생은 고인은 맨손으로 거대한 사회복지시설을 일궈냈으며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의 돈도 쓰지 않은 가장

34) 『조선일보』 1995년 2월 2일, “사람사랑, 한평생 「광주의 테레사」-전쟁고아 등 4,700여명 키워” 세운 박순이”.

35) 『광주일보』 1995년 2월 5일, “고아의 어머니로, 노인의 친구로 한 평생 6·25직후 사회사업척발 ‘광주의 테레사’”.

36) 『무등일보』 1995년 2월 3일, “사회복지사업 헌신 「고아들의 어머니」”



모범적인 사회사업가였다”고 평가했다.

‘월간지 대동문화’ 2006년 가을호 특집기사에서는 박순이 선생에 대해 이웃 사랑 실천한 우리 시대 마더 테레사 전국 최초 사설 영아원설립, 헌신적 봉사 및 활동의 귀감으로 소개하고 있다.<sup>37)</sup> “당시 충현원은 광주를 찾아오는 지식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하던 곳이었다. YMCA청·장년 및 지식인들을 비롯하여 서울이나 외국 등지에서 손님이 찾아오면 마땅히 묵을 장소가 없었으니, 으레 충현원 생활관을 강당(회의실)과 숙소로 이용했다. ‘씨알의 소리’를 창간했던 함석헌 선생도 정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광주를 방문하면, 꼭 충현원을 찾아 머물고 이곳에서 강의를 하였다.” ‘광주1백년’ 저자 박선홍 선생은 “함석헌 선생의 강연을 들으러 여러 차례 충현원에 갔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당시를 회고하기도 했다. 정구선<sup>38)</sup>은 충현원에서 함석헌 선생의 강의를 듣던 일들을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밖에도 박순이 선생 관련 소개기사나 문헌을 살펴보면 광주드림기사에는 “‘여교사 박순이씨’ 전쟁고아들 자식처럼 품은 곳”<sup>39)</sup>, ‘시민의 소리’ 2013년 사회 뉴스란에 “‘광주전남여성운동사25’ 전쟁고아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세운 박순이 버려진 갓난아기들의 ‘따뜻한 등지’로서 충현원”을 소개하고 있다.<sup>40)</sup> 한국사회복지를 개척한 인물<sup>41)</sup>에는 충현원 설립자 박 선생의 출생과 생애를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의 224쪽에 이미 사택에는 45명의 고아들이 생활하고 있었다고 표기되어 있으나, 박 선생과의 인터뷰 내용과 당시 생활을 소상하게 기억하고 있던 1944년 박 선생의 아들의 증언에 의하면 길거리에 버려진 신생아들을 주어서 기르기 시작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신안문화’ 사람과 문화의 ‘음악을 사랑한 청년 김생옥’ 편에 남은 가족이야기로 박 선생의 일화가 소개되어 있다.<sup>42)</sup>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에서 2015년 10월 발행된 복지 정책과 복지 현장의 브리지 복지저널 ‘액티브노년, 100세 시대를 달린다.’<sup>43)</sup>에는 생명 존중 사랑을 실천한 ‘광주의 누님’으로 소개하고 있다. 재단 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에서 2015년 12월 발행된 광주1백년 3권<sup>44)</sup> 개화기 이후 광주의 삶과 풍속에는 ‘고아의 어머니 박순이 원장’이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광주 산책’<sup>45)</sup>에도 충현원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고 ‘역사를 배우며 문화에 노닐다’<sup>46)</sup>, ‘양림을 걷다’에도 박 선생의 일대기가 소개되어 있다.

37) 조상열(2006), “이웃사랑 실천한 우리시대 마더테레사,” 『대동문화』 가을호 통권 39호, pp.93-95.

38) 정구선(1939-현재) : 담양 출생, 전 광주 NGO 시민 재단 이사장.

39) 『광주드림』 2007년 12월 13일, “여교사 박순이씨 52년 전쟁고아들 자식처럼 품은 곳”.

40) 『시민의 소리』 2013년 1월 9일, “전쟁고아 위해 사회복지시설 세운 박순이”.

41) 이용교 편저(2013), 『한국사회복지를 개척한 인물』, 광주대학교 출판부, pp.223-229.

42) 이현조(2015), “음악을 사랑한 청년 김생옥,” 『신안문화』 통권 25호, pp.50-59.

43) 한국사회복지 협의회(2015), “생명존중 사랑을 실천한 ‘광주의 누님,’” 『복지저널』 제86호, pp.72-75.

44) 박선홍(2015), 『광주 1백년 3권』,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pp.139-149.

45) 김정호(2015), 『광주산책』,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pp.205-206.

46) 광주광역시 남구역사문화인물간행위원회(2015), 『<역사를 배우며 문화에 노닐다.> 광주광역시남구역사문화인물』, ㈜아시아문화커뮤니티, pp.325-327.



양림동 광주근대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보완<sup>47)</sup>에도 박순이 선생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광주 1백년과 무등산’을 집필한 박선홍과 이강재 금호문화재단 부이사장, 그리고 명노근<sup>48)</sup> 교수는 “19세기 생명존중사랑을 실천한 여성으로 서서평 선교사가 있었다면, 20세기 생명존중정신을 실천한 여성으로 박순이 선생이 있었다고 할 정도로 높이 평가하였다. 이처럼 박 선생은 한국 빈곤시대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 ‘광주의 누님’이라고 불렸고, 생명존중사랑을 몸소 실천한 사상가였다.

## 2. 글로벌화

충현원 설립자 박순이 선생의 선교활동 보고는 한국 전쟁당시 1,059명의 고아들을 자기의 목숨과 명예를 버리고 제주도로 구출한 미공군 군목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의 생명존중정신과 함께 하자는 제안이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었다. 결국 2007년 1월 7일 한국전쟁고아 1,000명의 아버지-군목 러셀 블레이즈델 대령의 회고록을 한글로 번역하여 책으로 발간해 달라는 의뢰편지를 받았다. 이러한 제안은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 이니라”라는 블레이즈델의 생명존중정신의 실천사상이 충현원의 정신과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때, 서울의 길거리에 있는 1,059명의 고아들을 1·4후퇴 때 철수하라는 미군의 명령을 어긴 채 러셀 블레이즈델은 부관 마이클 스트랭과 함께 서울과 인천으로 1,000여명 고아를 이동시켰다. 또한 블레이즈델은 인천에서 다시 서울로 통역 엘리스 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고아들과 함께 목숨을 걸기로 다짐하고 서울에서 미공군 수송기 C-54기 16대를 기적적으로 약속받고 다시 인천에서 미 해병대 트럭을 이용하여 고아들을 김포공항에 도착하게 한 후 제주도로 기적적으로 구출한 일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주인공을 딘 헤스대령으로 바꾸어 왜곡된 채 영화<sup>49)</sup>로 만들어졌고, 제주도로 구출하여 운영되던 고아원<sup>50)</sup>도 원불교 재단으로 바뀌었다. 군목인 자신도 미국 남장로교 출신이고, 아들 카터 목사도 양림동에서 사역한 선교사님들과 함께 미국 NC(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활동하면서 세 번의 기도 응답으로 충현원에 의뢰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리고 마침내 2008년 5월 1일 "전란과 아이들-그 일 천명의 아버지-"라는 책이 군목 러셀 블레이즈델의 1주기 추모와 더불어 회고록 출판기념식을 충현원에서 개최하였다. 2009년 5월 16일 충현원은 한국전쟁 전후에 도와준 14명의 선교사들을 추모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군목 블레이즈델 2주기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몬트리트 Presbyterian

47) 김윤희회진(2015), 『양림동 광주근대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보완』, 사회복지법인 충현원, pp.64-75.

48) 명노근(1933-2000) 광주 출생, 전남대학교 교수로서 대학민주화 운동에 앞장섰으며 민주교육지표 사건으로 해직당함. 1980년 오월항쟁당시에는 수습대책위원으로 활동한 민주인사였고 투옥 후 복직. 또한 광주YMCA 부흥에 앞장섬은 물론 전국YMCA연맹 이사장으로 활동하였음.

49) Battle Hymn (전송가) 신념의 조인

50) 한국 보육원

Heritage Center 주관으로 개최하였고, 그 동안 광주에서 사역한 많은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만났다. 2009년 12월 17일에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미공군 군목(대령) 러셀 블레이크델의 동상을 충현원에 설치하고 제막식을 개최하였다.

2010년 12월 30일에는 광주광역시의 지원으로 옛 전쟁고아시설 충현원의 전시관, 예절관, 체험관, 보육관 등 1차 복원사업이 준공되면서 유지관리는 서구에 있는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을 옮겨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광주광역시와 협약하여 관광자원화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 협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시 서구 관할 구청장의 선거보복과 담당 직원이 서류를 위조하여 미혼 아들의 아기를 군목 블레이크델 손녀에게 입양시키려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민간 복지기관과 담당 관공서와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 즉 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한 감사와 모함<sup>51)</sup> 등으로 인하여 결국 2013년 8월9일 호남종합사회복지관을 자진 폐지하였다. 정부보조가 아닌 민간인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고아발생예방 희망 장학사업 업무는 다시 충현원으로 이관하여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다.

2011년 5월 30일 한국전쟁 고아의 아버지 “1,000명의 아버지” 제2판을 출간하였다. 2012년 3월 30일 충현원 고아시설 건물복원 및 조형물, 한국 전쟁 당시 희생된 500,000만 명의 고아를 추모하는 멕시코 조각가 세바스찬이 제작한 비운의 왕좌와 20만 해외입양 한인을 평화의 대사로 상징하는 ‘라스팔로마스’ 제막식을 거행하였고, 다음날에는 해외입양인 장미무용단을 초청하여 공연하였다.

충현원은 2008년 이후 매년 12월 20일 한국전쟁 미공군 어린이 구출작전 기념식 및 ‘미공군 군목 러셀 블레이크델 대령 회고록 1,000명의 아버지’ 독후감 공모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 자녀들과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시상식을 개최하고 있다. 2017년 6월에는 진정한 한국 전쟁 고아들의 아버지!! 미공군 군목 故 러셀 블레이크델 대령의 10주기 추모식과 기념 국제학술 포럼을 개최하였다. 또한 충현원은 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역사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한국전쟁 고아 관련 전시관과 선교사회복지기념관, 해외입양 한인 및 전쟁고아들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공간 등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다.

현재 충현원은 광주 양림동 근대문화역사의 성지 순례지 중 사회복지역사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와 광주광역시의 도움으로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 보육시설인 충현원 건물 6동을 수리하여 복원하였다. 국내 현존 보육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충현원은 선교사적인 측면에서 역사적인 가치가 높게 평가되었고, 전쟁의 참상에 대한 역사 체험과 교육의 장, 해외입양 한인에 대한 이해 증진, 국제교류 활성화 등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탈바꿈하고 있다. 이는 지역종합복지와 아동복지, 더불어 나라가 기르지 못한 해외입양 한인들이 모국을 방문하여 잃어버린 핏줄과 근원을 찾게 하고 입양

51) 방철호(1936-2018) : 충남 부여 출생, 목사, 광주사회복지협의회장(1999-2017.2)역임. 2011년 10월 20일, 인터뷰 장소: 호남종합사회복지관: 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현원의 임시 대표이사 자격을 위임받아 활동하였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고 상처를 치유하여 미래세계를 향한 한국의 자녀로써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생명존중의 텃자리로서 친정집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충현원은 사회 문제 예방사업을 통해 고아 발생을 예방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가정과 사회 만들기를 추구하고 있다.

충현원은 현재 20만 명이 넘는 해외입양 한인들의 고향과 고국의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요람이 되고 있으며, 한국 전쟁 고아와 해외입양 역사박물관이 함께 건립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또한 충현원은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한국인 디아스포라 740만 명과 약20만 명에 달하는 해외입양 한인들에게 당시 입양이 불가피했던 상황을 이해시키고 스스로 자아 정체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과 역할을 하고 있다. 충현원은 해외입양 한인들에게 과거를 회상하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과거의 태생적 아픔을 승화시켜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찾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민족의 긍지를 심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

## V. 나가며

이 연구는 기독교적 생명존중정신의 기반 위에 전쟁고아 및 여성보호를 위해 충현원을 설립한 박순이 선생의 삶의 궤적, 사회복지 태동, 그리고 글로벌시대 고아원에서 해외입양 한인들로 이어지는 정신계승 사업을 고찰하였다. 충현원의 설립자 박 선생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적 가르침에 따라 헌신적으로 생명존중정신의 실천을 이루어 냈다.<sup>52)</sup> 신약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라고 말하고 있다. 연구자는 향후 ‘사회복지역사 연구회’를 통하여 충현원의 사회복지 태동과 실천의 역사가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다음 세대 학생들에게 계승되어 연구 기반이 더욱 굳게 세워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확신 속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적시한다.

첫째, 박순이 선생의 생명존중정신과 실천적인 삶의 새로운 조명이다. 박선생은 우월순 선교사의 도움으로 1949년에 충현영아원을 설립했으며 이후 충현아동상담소(1972년), 충현어린이집(1972년), 충현아동병원(고아전용병원)(1976년), 공공어린이놀이터(1976년), 기아일시보호소(1972년), 호남종합사회복지관(1981년)을 설립하여 기독교적 생명존중정신을 몸소 실천하였다. 이러한 활동의 배경에는 초기 양립동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선교사들과 협력사역을 실천한 한국인 기독교인들의 영향이 컸다. 향후 박선생을 중심으로 당시 활동했던 외국인선교사와 한국인 기독교인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52) 최은경목사(정음문화연구원장)는 충현원을 표현하기를 “한겨레의 중심 사상은 홍익정신인데 대한민국의 생명존중정신의 중심은 빛고을이요, 빛고을의 정신적인 중심은 양립동이요, 양립동의 정신적 중심이 충현원이다”고 강조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음.

둘째, 박순이 선생은 고아들에 대한 사회복지차원의 새로운 지평을 개척하였다. 온전한 가정의 역할에 의한 고아원의 탈시설화를 주장하였다. 이것은 고아들에 대하여 사회문제 치료 사업에서 예방 사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박 선생은 전쟁으로 발생한 불가피한 고아들은 고아원에서 돌보아야 하지만 1972년 한국산업화와 경제성장 이후 고아 발생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예방하고 발생한 아동은 시설에서 키우기보다는 가정위탁이나 입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탈시설론을 주창하였다. 충현원이 주는 이러한 생명존중정신은 어린 아이들을 꼭 친부모가 길러야한다는 사상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전쟁 상황에서처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전쟁고아는 한국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현실점에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고아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다. 더불어 한국사회에서 성문화와 결혼문화가 가장 성스러운 축복받는 관습으로 사회가 바뀌어 간다면, 사람들은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가정과 사회에서 올바른 교육을 통하여 소중한 생명이 땅에 버려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충현원으로부터 시작된 이러한 양림동의 생명존중사상은 전 세계에 걸쳐 올바른 결혼과 온전한 가정의 역할에 대한 문화적 담론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충현원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문제이다. 충현원은 1953년부터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신생아들의 사망률이 매우 높았던 시절에 햇빛을 이용하여 신생아들의 황달을 치료하고,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설계하여 2층 건물을 신축한 근대문화유산이다. 이러한 충현원의 역사적 가치는 지금까지 개인 차원에서 혹은 지역적 차원에서 존재가치가 머물러 있거나 매몰되어 왔다. 이제 충현원은 지역적 차원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 전 세계 글로벌적 차원의 모두에게 소중한 민족문화자산이자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더구나 글로벌 시대, 전 세계 16개국에 거주하는 20여만 명의 해외입양 한인을 고려할 때, 그들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 충현원을 하루빨리 대한민국 근대유산 기념물로 지정하여 그들의 정체성의 확립과 입양 트라우마의 치유 장소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넷째, 충현원은 전쟁고아의 메카이자 해외입양 한인의 산실로서 교류센터 역할의 가능성이다. 이를 위해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으로 출전한 16개국에 대한 보훈차원의 호국동산과 조각공원 조성, 한국전쟁고아들의 고향으로서 해외입양 한인들을 위한 국제교류센터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한반도가 강대국 틈새에서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역사 교육장소로서 충현원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교육은 망국의 지름길이다. 또한 충현원이 한국전쟁 후유증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외로 입양된 해외입양 한인들의 친정집 역할을 하고 가정해체방지과 미혼부모발생 예방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충현원 복원 당시 정부 당국과 협약한 대로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

다섯째, 광주 양림동에 위치한 충현원은 근대역사문화재로서 충분한 스토리와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양림동의 귀중한 근대역사의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충현원이 당국관계자의 무관심으로 방치되고 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980년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면서 5·18 광주민중항쟁의 위로 차원에서 사직도서관을 건립하겠다고 도로를 내면서 길거리에 버려진 광주 최초의 놀이터 비석도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연구자는 통탄할 일이지만 하루빨리 충현원 내에 한국 전쟁 고아와 해외입양 한인 역사박물관이 건립되어 양림동이 근대역사문화유산의 올바른 전승지로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박순이 선생은 그녀의 묘비명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는 성경말씀과 같은 삶을 몸소 살다 가셨다. 생전 선생은 ‘인권존중, 사랑, 평화’를 중심으로 생명존중정신을 몸소 실천하셨던 분으로 ‘광주의 마더 테레사’, ‘광주의 누님’, ‘고아의 어머니’로도 회자되었다. 한국사회복지의 중요한 지표인 광주 충현원은 근현대 역사의 질곡에서 ‘전쟁고아’를 대상으로 박 선생의 생명존중정신이 전개된 곳으로 21세기 글로벌시대에 ‘해외입양 한인’들에게까지 전승되어야 한다. 이것이 광주의 글로벌화이고 한국의 글로벌화이며, 선대에 대한 다음 세대인 우리들의 책무이다. 이 연구는 연구자의 자료수집과 면접조사 자료에 의존한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모든 오류는 전적으로 연구자의 책임이며, 향후 계속해서 수정하고 바로잡아 나갈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충현원과 박 선생에 관한 좀 더 세밀하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후속 연구들이 계속해서 배태하기를 기대한다. \*\*\*

##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남구역사문화인물간행위원회(2015), 『<역사를 배우며 문화에 노닐다.> 광주광역시남구역사문화인물』, (주)아시아문화커뮤니티, pp.325-327.
- 김윤희희진(2015), 『양림동 광주근대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보완』, 사회복지법인 충현원(제중사회복지교양센터), pp.64-75.
- 김윤희희진(2015), 『충현원(忠峴院)의 발자취』, 사회복지법인 충현원.
- 김윤희희진(2015), “한국사회복지의 선구자 충현원,” 『양림동 광주근대역사문화 스토리텔링 보완』, 사회복지법인 충현원.
- 김정호(2015), 『광주산책』, 재단법인 광주광역시광주문화재단, pp.205-206.
- 박선홍(2015), 『광주1백년③-개화기 이후 광주의 삶과 풍속』, 광주문화재단, pp.139-149.
- 신안문화원(2015), “음악을 사랑한 김생옥,” 『신안문화』 통권25호, pp.50-59.
- 이용교 편저(2013), 『한국사회복지를 개척한 인물』, 광주대학교 출판부, pp.223-229.
- 이현조(2015), “음악을 사랑한 청년 김생옥,” 『신안문화』 Vol.25, 신안문화원.
- 조상열(2006), “이웃사랑 실천한 우리시대 마더테레사,” 『대동문화』 가을호 통권 39호, pp.93-95.
- 차홍봉(2015), “생명존중 사랑을 실천한 ‘광주의 누님,’” 『복지저널』 제86호.
- 충현원(2012), 『한국전쟁 고아시설 건물복원 준공식 및 조형물 제막식』 기념발간책자.
- 한국사회복지협의회(2015), “액티브 노년, 100세 시대 달린다,” 『복지저널』 제86호, pp.72-75.
- www.koreanchildren.org, 검색일: 2018년 4월 19일.
- 『광주일보』 1985년 10월 1일
- 『광주일보』 1995년 2월 5일
- 『광주드림』 2007년 12월 13일
- 『대동문화』 2006년 9월 30일
- 『무등일보』 1995년 2월 3일
- 『시민의 소리』 2013년 1월 9일
- 『조선일보』 1995년 2월 2일
- 『조선일보』 2015년 8월 14일



<사진자료>

■ 우월순(Robert Wilson) 선교사댁에서 시작한 충현원 사진들



■ 박순이 선생의 어머니 박애신이 만들어준 세라복을 입은 우월순(Robert Wilson) 선교사 자녀들과 유진벨(Eugene Bell) 낙스(Knox)가족들



Staircase 1922



Dr. Bell-Mrs Bell-Hattie-Georgia-Dr. Knox-Roy Newland?-Mrs. Newland  
 Sam Mae Knox Bess Manton  
 Bill Bell Liz John T. Jim Frank Stu Bob Johnny Ed Joe

■ 한국 전쟁 직후 의료시설이 열악하여 햇빛을 이용하여 신생아 황달치료를 위하여 남쪽 전면이 유리창 인 2층 건물



■ 함석헌 선생(기독교 문필가·민중운동가)과 충현원 아이들 사진



■ 충현아동병원 개원식과 어린이 놀이터 기공식 사진





■ 현재의 충현원 전경 일부



■ 충현원 경내에 설치된 동상과 조각들



Statue of the late Chaplain Russell Lloyd Blaisdel.  
- Father of a Thousand Kids of the Korean War  
(“한국 전쟁 고아의 아버지” 러셀 블레이크델 대령 동상)



"Las Palomas Chica"  
(해외입양 한인들을 고향의 대사를 상징하는 조각(Symbolizing Overseas Korean Adoptees))



"The Throne of Nezahualcoyotl" (Memorializing Korean War Orphans) 한국전쟁과 희생된 고아들을 추모하는 비혼의 왕좌